



어머니를 그린 '바라보다' 시리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안천용 화백.

“70여년만의 귀향... 그리움 속 어머니 그렸죠”

전시장에서 만나는 50여점의 작품은 무엇보다 강렬한 색채가 인상적이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모두 표현주의 화가를 연상시키는 대담한 원색 표현이 눈길을 끈다. 특히 아이와 엄마의 모습을 담은 인물화는 깊은 울림을 준다. 작가가 '꿈에도 잊지 못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재일교포 작가 안천용. 올해 여든 다섯의 노(老) 화백은 7년전 고국으로 돌아왔다. 70여년만의 귀향이었다.

재일화가 안천용 작가
16일까지 '낮선 귀향' 전
인물·풍경 50여점 전시
광주 무등현대미술관

그의 작품은 오는 16일까지 광주 무등현대미술관에서 열리는 월하미술 기획전 '안천용-낮선 귀향'전에서 만날 수 있다. 한국 정착 후 처음 여는 대규모 개인전이다.

늘 함께했던 삶이었고, 결혼 후에는 자식들을 키우느라 작업에 전념할 수는 없었지만 언제나 '그림'만은 손에서 놓지 않았다.

안 화백의 삶 속엔 '슬픈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삶의 풍경은 화폭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경북 포항 출신인 안 화백은 4살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만났고, 그림을 공부하기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지만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며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쳤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가난이

이번 전시에서 보듯, 그의 작품 속에는 늘 어머니가 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꼭 어머니를 그리게 돼요. 제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 어딘가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미인도 아니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강인하셨습니다. 작품에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담긴 듯도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물화를 그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꼭 어머니를 그리게 돼요. 제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 어딘가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미인도 아니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강인하셨습니다. 작품에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담긴 듯도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 화백의 삶 속엔 '슬픈 현대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고, 그 삶의 풍경은 화폭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경북 포항 출신인 안 화백은 4살 때,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아버지를 찾아 어머니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다.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만났고, 그림을 공부하기 어려운 집안 형편이었지만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며 꾸준히 창작 활동을 펼쳤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과 가난이

“일본에서도 작은미술관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면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그림 그리며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도 그런 공간을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저도 모르게 꼭 어머니를 그리게 돼요. 제 손을 꼭 잡고, 아버지를 기다리던 어머니의 모습이 기억 어딘가에 강렬하게 남아있는 듯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미인도 아니고,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강인하셨습니다. 작품에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자연스럽게 담긴 듯도 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애뜻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가는 해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바보들”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다 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다’

그의 그림에서 만나는 원초적이고 오묘한 느낌의 색감과 거친 질감의 화면은 그림에 깊이감을 더해준다. 또 강한 색감의 대비가 결집되지 않고, 자연스레 어우러지면서 작품에 힘을 부여한다. 강원도 영월, 경북 경주 등을 방문하고 그린 풍경화 등에는 자신만의 언어로 풀어낸 이야기가 담겨 있고, 꽃그림 역시 강렬한 생명력을 전달한다.

10년 전 처음 한국을 찾은 그는 그때 본 풍경과 사람들이 마음에 남았고, 3년 후 아예 한국에 정착하기로 마음 먹고 귀국했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죽는 건 자연스러운 거지요. 늘 고향을 그리워했고, 그 마음들이 언제나 저에게 있었던 듯합니다. 고향을 등지고 바다를 건너던 어머니와 또 그 때로 여인들의 모습이 늘 기억에 남아 있는데, 그 장면들을 꼭 그려보고 싶네요. 우리 나시대 사람들은 식민지, 해방, 전쟁 등 수많은 경험을 해왔지요. 일본에 살면서 많은 차별과 어려움을 견뎌하기도 하고, 정체성 문제로 고민도 했지만 그 시간이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장에서 만나는 그림들은 굳이 안 화백의 삶을 따라가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영원한 안식인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고 있어 쉽게 마음이 가기도 한다. 사실, 안 화백은 광주와 별연고 없다. 이번 기획전은 전시를 준비한 서울의 월하미술이 안 화백의 그림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로 물색하다 광주를 짚어 이뤄졌다.

“일본에서도 작은미술관을 갖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오면 이야기도 나누고, 제가 그림 그리며 공부하는 그런 공간이었죠. 기회가 되면 한국에서도 그런 공간을 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작가는 해도 해도 만족하지 못하는 바보들”이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을 그리다 가고 싶다”고 말했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세월의 반복과 겹침 ‘숨, 응시하다’

장용림 초대전, 30일까지 금봉미술관

‘단아한 한국화의 매력을 만나다.’ 전통채색화를 현대적 기법으로 재해석,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만들어가는 장용림 작가 초대전이 오는 30일까지 열린다.



‘숨, 응시하다’

금봉미술관 초청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숨, 응시하다’를 주제로 한국화의 은은한 매력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인다.

9번째 개인전인 전시에서 그는 술한 붓질이 만들어진 오묘한 색감의 백자항아리, 푸른 소나무 가지, 화사한 매화꽃, 목화꽃 등을 소재로 차분한 정서를 표출해 낸다. 수없이 색을 쌓아올린 자연스러운 붓질의 그림들은 편안하고 안온한 느낌으로 다가가 안정감과 위로를 전하며 사색에 빠지게 한다.

학과 한국화 전공 과정을 졸업했으며 전통과 형상회, 그룹세백회, 진경매화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하얀 달항아리와 어우러진 소나무 가지의 푸른 빛은 화면에 신비로운 기운을 더하며 향아리에 꽃힌 매화 꽃나무는 소박한 느낌으로 다가온다.

작가는 전시주제에 표현된 ‘숨’은 들숨과 날숨의 반복이자, 꽃이 피고 지는 일처럼 반복되는 자연섭리의 표출이라고 말한다. 또 수많은 붓질을 반복하는 행위를 통해 다양하고 깊은 느낌의 화면이 만들어지고, 세월의 흔적도 고스란히 쌓인다고 덧붙인다.

장 작가는 전남대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 미술



온 가족 모두가 호기심 속으로...

‘매직드로잉 가족극, 두들팝’ 11일 광주문예회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연상을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낙서와 그리기를 통해 바다로 떠나는 작은 거북이와 두 주인공 ‘우기’와 ‘부기’의 모험 이야기를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장면들로 유쾌하게 그려낸다.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포커스(Focus) 두번째 공연 ‘매직드로잉 가족극, 두들팝’이 오는 11일 오후 2시, 7시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특히, 가로 4.8m, 세로 2.2m의 거대한 화이트보드 전체를 활용하는 역동적인 드로잉 퍼포먼스와 특수처리 된 스크린을 통해 펼쳐지는 영상은 무한한 꿈의 세계를 보여주며 관객들의 끊임없는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아낸다.

이번 작품은 드로잉과 프로젝션 맵핑 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미디어 드로잉쇼로 2018년 영국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초연 이후 영국, 터키, 캐나다 등 세계각지에서 공연을 선보여왔다.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3. 어린이들의 낙서와 그리기에서 비롯되는 자유

전석 2만원. 문의 062-613-8233.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배일동 명창 초청 13일 ‘빛고을 렉처콘서트’

판소리에 깃든 우리의 문명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강좌가 마련됐다.

판소리의 연관성, 소리의 발생과 장단 관계에 대해 얘기한다. 또한 숨의 근원인 기와 숨(호흡), 소리 발생법과 청, 통선, 성량, 섭생 등 소리의 기본을 비롯해 소리꾼의 존재 의미 등도 풀이될 예정이다.



배일동 명창

광주문화재단은 13일 오후 7시 30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에서 명창 배일동 씨를 초청해 ‘빛고을 렉처콘서트’를 진행한다.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이수자인 배일동 씨는 제1회 사야극악상을 수상했으며 ‘독공’, ‘독음’이란 책을 출간했다. 뉴욕퀸센터와 워싱턴

‘판소리에 깃든 우리 문명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올해 두 번째 ‘빛고을 렉처콘서트’가 진행된다. 이번 렉처콘서트에서 배일동 명창은 훈민정음과

스미소소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등에서 다수의 공연을 했고 현재는 배일동 판소리 연구소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선착순 50명 전화예약. 6월 10일 강연자는 배우 이한위 씨로 주제는 ‘배우로 살아남기’. 문의 062-670-7926.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CC 민주·인권·평화 UCC 공모전’...6월 7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5·18민주화운동 41주년을 기념해 민주·인권·평화 가치를 담은 ‘2021 ACC 민주·인권·평화 UCC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손수 제작물(UCC) 공모전의 주제는 ‘온택트 5·18’. 대학생과 일반인은 일반부, 초·중·고등학생 및 같은 연령대는 청소년부에 지원이 가능하다.

(애니메이션) 등 장르 제한은 없다. 해상도는 1280×720 픽셀 이상, 500MB 이하여야 한다.

영상은 1분 이상 3분 이내로 영상일기(브이로그), 기록영화(다큐멘터리), 웹드라마, 만화영화

각 부문별 대상 1명(팀) 등 입상자 10명(팀)을 선발하며 수상자에게 총 12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결과는 오는 6월 28일 ACC누리집을 통해 발표하며 수상작은 채널ACC-미디어월-누리소통망 등 ACC매체를 통해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마감은 6월 7일 오후 5시. 문의 062-601-4464.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